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심현주
경동대학교 치위생학부 부교수

The Influence of Incivility and Stress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upon Professional Identity

Hyun-Ju Sh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총 297명이며,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지원동기, 학과 만족도, 실습기관 만족도에서 전문직 정체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으로는 학과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이었으며, 설명력은 17.9%였다. 이에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치위생(학)과 학생, 임상실습, 무례함,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influence of incivility and stress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upon professional identity. The research subjects are totally 297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fessional ident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reason for application, in the academic department satisfaction, and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institution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indicated that the incivility and the clinical-practice stres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nd that the clinical-practice stress and the professional identity have a negative correlation. The influential element upon professional identity was a conflict with a patient among sub-factors of the academic department satisfaction and the clinical-practice stress. The explanation power accounted for 17.9%. Accordingly, to improve the professional identit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of reducing and coping with the clinical-practice stress. And a specific plan is necessary for increasing the satisfaction with the academic department.

Key Words : Dental hygiene(Department) students, Clinical practice, Incivility,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Shim(Shj2013@kduniv.ac.kr)

Received September 22,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임상실습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임상실습 시간은 치위생(학)과 인증평가원의 기준안에서 500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복연 등[1]의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표준(안)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구강 보건학 실습을 포함한 780시간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로 학생이 교내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 수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기존 연구에서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대와 함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적응, 대인관계 스트레스, 무례함 등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생각은 회의적이며 부정적이다 하였고, 이런 낮은 실습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이나 진로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2-5].

무례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으로 정의하며, 근무지에서의 무례함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근무지에서의 규범을 위반하는 낮은 강도의 일탈 행동과 상호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6,7].

이러한 무례함을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면 대인불안 수준과 감정노동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8] 이로 인해 실습생은 소진될 수 있으며,[9] 이러한 무례함의 경험이 쌓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10,11].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실습생은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며,[4,6] 진로정체감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5,11].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은 대부분 전공에 대한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전에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직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반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교교육과 임상실습 사이의 괴리감, 모호한 실습생의

역할, 낮은 환경, 피로감, 미숙한 역량,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10]으로 나타났고, 학생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경우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와 같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트레스는 실습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무례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6,12].

전문직은 고유의 특별한 지식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이며, 전문직 정체성은 스스로의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지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13,14]. 치위생직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개인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보다 나은 질적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전문직 정체성 확립은 필요하다[5,14]. 이를 위해서는 치위생 관련 교양, 이론 및 교내외 실습 교육 과정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자신감, 자존감 등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개인 특성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이선미 등[15]은 임상실습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전공에 대한 부적합성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언급하였고, 오재우 등[1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정에서 지각된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 및 타 직업의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전문 직업관을 가질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업무 수행 능력과 조직몰입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다고 하였다. 치과 위생사는 보건의료직 중 이직률이 높은 편으로 치과위생사 개인의 전공유지와 직업적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14,17-19].

최근 치위생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치과조직문화와 전문직 정체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20], 임상실습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21], 역할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전문직 정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2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에 관한 연구[23]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나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의 긍정적인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치위생 전공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1041455-202102-HR-003-01)을 거쳐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강원도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 2~4학년으로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9.4를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0.95

수준으로 산출하여 도출된 결과 230명을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네이버 폼)조사로 인한 설문 회수율 저조와 분석과정 중 결측값으로 제외될 것을 고려하여 적정 추가 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설문 수를 추가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하여 안내 및 동의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결과 315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8부를 제외한 최종 2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의 무례함은 선행연구 중 Maureen Anthony와 Joanne Yastik[24]가 개발한 측정도구 UBCNE를 바탕으로 Jo와 Oh[25]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한국판 무례함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Beck와 Srivastava[26]가 개발하고 Kim과 Lee[2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는 김형미[28]의 연구를 참고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Table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 Female	
	Grade	3rd / 4th	
	Religion	Yes / No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 Own interest and aptitude / High employment rate /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 Etc	
	Last semester's grades	<2.5 / ≥2.5, <3.0 / ≥3.0, <3.5 / ≥3.5, <4.0 / ≥4.0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 / Poor / Moderate / Good / Very good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 2 / 3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 University general hospital / Etc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 / Poor / Moderate / Good / Very good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 No
		Patient · Protector	
Dental hygienist			
Doctor			
Nurse assistant			
Incivility	Exclusion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Contempt		
	Refusal		

(Continued)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nt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Undesirable role model	
	Practice work burd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flicts with patients	
Professional identity	Sense of calling	Very / Yes / Neutral / No / Never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설문문항은 총 67문항이며 일반적 특성은 15문항, 무례함은 13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문항, 전문직 정체성은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중 무례함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무례함은 Cronbach's α 는 0.863,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Cronbach's α 는 0.864, 전문직 정체성은 Cronbach's α 는 0.848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 Schffe test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학생 286명(96.3%), 남학생 11명(3.7%), 학년은 3학년 195명(65.7%), 4학년 102명(34.3%), 종교가 있음 70명(23.6), 없음 227명(76.4%)이었다. 지원동기는 높은 취업률 102명(34.3%), 주변권유 82명(27.6%), 본인의 관심 및 적성 55명(18.5%), 성적(수능내신)맞춤지원 33명(11.1%),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22명(7.4%), 기타 3명(1.0%)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학기 학점은 3.0이상~3.5미만 102명(34.3%), 3.5이상~4.0미만 94명(31.6%), 4.0이상 59명(19.9%), 2.5이상~3.0미만 31명(10.4%), 2.5미만 11명(3.7%)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는 보통 144명(48.5%), 만족 121명(40.7%), 불만족 19명(6.4%), 매우 만족 9명(3.0%), 매우 불만족 4명(1.3%)순이었으며, 임상실습 횟수는 1회 169명(56.9%), 2회 111명(37.4%), 3회 17명(5.7%)순이었다. 지난학기 임상실습 기관은 치과병·의원 185명(62.3%), 대학·종합병원 103명(34.7%)순이었으며, 실습기관 만족도는 만족 123명(41.4%), 보통 96명(32.3%), 불만족 39명(13.1%), 매우 만족 25명(8.4%), 매우 불만족 14명(4.7%)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간 중 무례함을 경험한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135명(45.5%), 의사 62명(21.9%), 환자·보호자 35명(11.8%), 친구나 동료 34명(11.4%), 간호조무사 22명(7.4%)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297)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11(3.7)	
	Female	286(96.3)	
Grade	3rd	195(65.7)	
	4th	102(34.3)	
Religion	Yes	70(23.6)	
	No	227(76.4)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82(27.6)	
	Own interest and aptitude	55(18.5)	
	High employment rate	102(34.3)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22(7.4)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33(11.1)	
	Etc	3(1.0)	
Last semester's Grades	<2.5	11(3.7)	
	≥2.5, <3.0	31(10.4)	
	≥3.0, <3.5	102(34.3)	
	≥3.5, <4.0	94(31.6)	
	≥4.0	59(19.9)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	4(1.3)	
	Poor	19(6.4)	
	Moderate	144(48.5)	
	Good	121(40.7)	
	Very good	9(3.0)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169(56.9)	
	2	111(37.4)	
	3	17(5.7)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185(62.3)	
	University-general hospital	103(34.7)	
	Etc	9(3.0)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	14(4.7)	
	Poor	39(13.1)	
	Moderate	96(32.3)	
	Good	123(41.4)	
	Very good	25(8.4)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34(11.4)
		No	263(88.6)
	Patient · Protector	Yes	35(11.8)
		No	262(88.2)
	Dental hygienist	Yes	135(45.5)
		No	162(54.5)
	Doctor	Yes	65(21.9)
		No	232(78.1)
	Nurse assistant	Yes	22(7.4)
		No	275(92.6)

3.2 대상자의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

임상실습 중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무례함은 5점 만점에 평균 1.81 ± 0.84 점으로 하위요인별 결과는 멸시 2.09 ± 1.15 점, 배타 1.74 ± 0.79 점, 거절 1.49 ± 0.8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으로 평균 2.43 ± 0.72 점이었고, 하위요인별 결과는 실습 교육 환경 3.08 ± 1.01 점, 실습업무 부담 2.76 ± 0.93 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2.58 ± 0.99 점, 대인관계 갈등 1.87 ± 0.77 점, 환자와의 갈등 1.80 ± 0.70 점으로 순이었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12 ± 0.55 점으로 하위요인별 결과는 위임된 권한 발휘도 4.47 ± 0.59 점, 전문직 단체 활용도 4.28 ± 0.66 점,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강령 준수도는 4.06 ± 0.73 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보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학문적 역량 강화욕구 3.73 ± 0.77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N=297)

Variable	Min-Max	Mean±SD
Incivility	1-5	1.81±0.84
Exclusion	1-5	1.74±0.79
Contempt	1-5	2.09±1.15
Refusal	1-5	1.49±0.82
Clinical practice stress	1-5	2.43±0.72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1-5	3.08±1.01
Undesirable role model	1-5	2.58±0.99
Practice work burden	1-5	2.76±0.93
Interpersonal relationship	1-5	1.87±0.77
Conflicts with patients	1-5	1.80±0.70
Professional identity	1-5	4.12±0.55
Sense of calling	1-5	4.06±0.73
Need for academic capacity building	1-5	3.73±0.77
Performance of delegated authority	1-5	4.47±0.59
Compliance of code of ethics	1-5	4.06±0.73
Usag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1-5	4.28±0.66

Table 4. Differences in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7)

Characteristics		All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11(3.7)	1.33±0.40	-3.816 (0.01)**	2.11±0.83	-1.486 (0.138)	4.04±0.40	-0.511 (0.609)	
	Female	286(96.3)	1.83±0.85		2.44±0.72		4.12±0.55		
Grade	3rd	195(65.7)	1.72±0.80	-2.716 (0.01)**	2.31±0.71	-4.156 (0.001)***	4.13±0.56	0.225 (0.822)	
	4th	102(34.3)	2.00±0.90		2.67±0.69		4.11±0.53		
Religion	Yes	70(23.6)	1.88±0.92	0.759 (0.449)	2.48±0.80	.681 (0.497)	4.12±0.56	-0.094 (0.926)	
	No	227(76.4)	1.79±0.82		2.42±0.70		4.12±0.55		
Motivations to apply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Recommendation from people around	82(27.6)	1.78±0.74	1.108 (0.356)	2.39±0.67	1.247 (0.287)	4.21±0.55	3.448 (0.01)**	
	Own interest and aptitude	55(18.5)	1.63±0.72		2.33±0.65		4.25±0.45		
	High employment rate	102(34.3)	1.90±0.98		2.42±0.76		4.01±0.59		
	To become a professional worker	22(7.4)	1.90±0.75		2.68±0.68		4.14±0.43		
	Customized application to grades(College entrance exam & school records)	33(11.1)	1.85±0.83		2.53±0.87		4.09±0.53		
	Etc	3(1.0)	2.43±1.30		2.97±0.29		3.24±0.36		
Last semester's Grades	<2.5	11(3.7)	1.63±0.60	0.244 (0.913)	2.25±0.79	1.594 (0.176)	3.92±0.58	1.459 (0.215)	
	≥2.5, <3.0	31(10.4)	1.73±0.90		2.18±0.78		3.99±0.79		
	≥3.0, <3.5	102(34.3)	1.82±0.89		2.41±0.73		4.09±0.50		
	≥3.5, <4.0	94(31.6)	1.83±0.81		2.51±0.69		4.18±0.55		
	≥4.0	59(19.9)	1.85±0.85		2.51±0.70		4.20±0.45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poor ^a	4(1.3)	2.23±0.58	5.690 (0.001)***	2.71±1.14	6.526 (0.001)***	3.56±0.29 ^a	12.856 (0.001)***	
	Poor ^b	19(6.4)	2.51±0.91 ^{cde}		2.98±0.52 ^d		3.76±0.55 ^{de}		
	Moderate ^c	144(48.5)	1.87±0.89 ^b		2.53±0.70 ^d		3.98±0.57 ^{de}		
	Good ^d	121(40.7)	1.66±0.74 ^b		2.23±0.70 ^{bc}		4.33±0.43 ^{bc}		
	Very good ^e	9(3.0)	1.32±0.48 ^b		2.22±0.76		4.60±0.36 ^{abc}		
Number of clinical practice	1 ^a	169(56.9)	1.74±0.81	2.070 (0.128)	2.31±0.71 ^b	6.302 (0.01)**	4.13±0.53	0.163 (0.850)	
	2 ^b	111(37.4)	1.94±0.89		2.62±0.68 ^a		4.11±0.57		
	3 ^c	17(5.7)	1.73±0.82		2.38±0.89		4.06±0.66		
Last semester'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Dental hospital-clinic	185(62.3)	1.80±0.86	0.314 (0.731)	2.40±0.73	0.420 (0.658)	4.09±0.58	1.757 (0.174)	
	University-general hospital	103(34.7)	1.85±0.84		2.48±0.72		4.20±0.51		
	Etc	9(3.0)	1.64±0.64		2.53±0.44		3.96±0.34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 satisfaction	Very poor ^a	14(4.7)	2.78±1.21 ^{cde}	36.649 (0.000)	3.00±0.81 ^{de}	30.005 (0.001)***	4.02±0.62	3.810 (0.01)**	
	Poor ^b	39(13.1)	2.64±1.01 ^{cde}		2.97±0.62 ^{de}		3.96±0.64		
	Moderate ^c	96(32.3)	2.00±0.74 ^{abde}		2.70±0.55 ^{de}		4.02±0.47		
	Good ^d	123(41.4)	1.41±0.46 ^{abc}		2.13±0.61 ^{abc}		4.22±0.55		
	Very good ^e	25(8.4)	1.23±0.42 ^{abc}		1.75±0.68 ^{abc}		4.33±0.51		
Incivility experience	Friends	Yes	34(11.4)	2.19±0.98	2.803 (0.01)**	2.75±0.55	3.453 (0.001)***	4.21±0.46	0.955 (0.340)
		No	263(88.6)	1.77±0.81		2.39±0.73		4.11±0.56	
	Patient Protector	Yes	35(11.8)	2.12±0.93	2.185 (0.05)	2.73±0.79	2.643 (0.01)**	4.23±0.52	1.206 (0.229)
		No	262(88.2)	1.78±0.83		2.39±0.71		4.11±0.55	
	Dental hygienist	Yes	135(45.5)	2.35±0.89	11.656 (0.001)***	2.80±0.61	8.831 (0.001)***	4.07±0.55	-1.559 (0.120)
		No	162(54.5)	1.36±0.46		2.13±0.67		4.17±0.55	
	Doctor	Yes	65(21.9)	2.25±0.77	4.906 (0.001)***	2.74±0.60	4.471 (0.001)***	4.23±0.55	1.862 (.064)
		No	232(78.1)	1.69±0.82		2.34±0.73		4.09±0.55	
	Nurse assistant	Yes	22(7.4)	2.57±0.99	4.489 (0.001)***	3.05±0.53	4.284 (0.001)***	4.17±0.57	0.407 (0.684)
		No	275(92.6)	1.75±0.80		2.38±0.71		4.12±0.55	

p-value calculated using t-test or ANOVA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무례함을 살펴보면, 성별(<0.01), 학년(<0.01), 무례함 경험 대상자로 친구나 동료(<0.01), 환자·보호자(<0.05), 치과위생사(<0.001), 의사(<0.001), 간호조무사(<0.001)에서 유의수준(<0.05 , <0.01 , <0.001)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과 만족도(<0.001)와 실습기관 만족도(<0.001)에서도 집단 간 무례함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학과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평균 2.51점, 매우 만족은 평균 1.32점이었고, 실습기관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이 평균 2.78점, 매우 만족은 1.23점으로 학과 만족도나 실습기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무례함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학년(<0.001)과 무례함을 경험한 대상자로 친구나 동료(<0.001), 환자·보호자(<0.01), 치과위생사(<0.001), 의사(<0.001), 간호조무사(<0.001)에서 유의수준(<0.01 , <0.001)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과 만족도(<0.001)와 임상실습 횟수(<0.01), 실습기관 만족도(<0.001)에서 집단 간 스트레스 평균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학과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평균 2.9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평균 2.2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습기관의 횟수는 2회가 평균 2.62점, 1회가 평균 2.31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관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평균 3.0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1.75점으로 낮게 나타나 학과 만족도와 실습기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 전문직 정체성을 살펴보면, 지원동기(<0.01), 학과 만족도(<0.001), 실습기관 만족도(<0.01)의 집단 간 평균 차이 있었고, 학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평균 4.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은 평균 3.56점으로 낮게 나타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과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696$)는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r=-0.150$)은 부적 상관관계의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297)

Variable	Inciv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Incivility	1		
Clinical practice stress	0.696**	1	
Professional identity	-0.068	-0.150**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N=297)

Variable	B	SE	β	t	F
Constant	3.462	0.170		20.419	
Department satisfaction	0.279	0.041	0.358	6.745	33.285
Clinical practice stress (Conflicts with patients)	-0.154	0.042	-0.196	-3.688	

$R^2=0.185$, adj $R^2=0.179$, $p<0.000$

3.5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로 확인된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임상실습기관 만족도와 주요변수인 무례함과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전문직 정체성은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ubin-Watson 통계량은 2.067으로 잔차의 자기 상관관계는 없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 값은 0.984로 0.1이상이었으며, VIF값은 1.017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33.285$, $p<0.001$), adj $R^2=0.179$ 으로 설명력은 17.9%였다. 전문직 정체성 영향 요인으로 학과만족도($\beta=0.358$ $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 ($\beta=-0.196$ $p<0.001$)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로 국민들은 건강한 삶의 질을 향한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였고, 구강건강은 건강

한 삶의 질의 주요 척도가 되었다. 이에 구강건강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고, 치과위생사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 확립도 중요하다[1,15,29].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직업을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직업적 자아를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동기, 행동습관을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교정해 가는 것을 말한다[30].

직업적 자아는 공식적인 학교교육과 계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대학의 교육과정 중 현장 임상실습이 직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31]가 있었다. 그러므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사회라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올바른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에서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1,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육의 영역인 임상실습의 과정에서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평균 점수는 1.81/5점으로 나타났다. 양희모 등[11]의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평균은 2.49점, 송정희 등[5]은 2.36점, 염은이[8]는 3.02점, 조수옥 등[25] 3.03점, 김지선[33]은 3.11점, 구상미 등[17]은 2.6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무례함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한국어판 도구로 타당화 하였으나 국내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34]과 무례함의 상황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비의도적이고 불명확한 행동 특성들로 간과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현장은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례함이 발생하기 쉽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경험한 무례함을 덮어두는 경향이 본 연구의 무례함 점수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무례함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35].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43/5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최성숙 등[3]은 3.61점, 최정희[23]는 2.79점으로 나타났고,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윤구[36]는 2.71점 이현정[37]은 3.17점, 양희모[11]는 2.94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 타 보건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은 방사선과 학생[38] 2.75점, 물리치료학과 학생[39] 2.76점으로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성향 및 대학, 학과별 특성의 실습운영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점수는 4.12/5점으로 나타났고, 치위생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선미[15]의 연구에서는 3.02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형미 등[13]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점수가 3.72점, 구자영 등[20]의 연구에서는 3.75점, 이선미[31]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측정은 김형미 등[28]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치위생 전공 학생에 맞게 수정·보완 후 조사하였다. 그동안 치위생 분야 및 타 직종에서 관련 선행연구가 이뤄지지는 했지만 측정도구 및 대상 표집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와의 구체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김형미[13]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치과위생사와 치위생 전공 학생 모두에게서 전문직 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위임된 권한 발휘도가 가장 높은 점수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점수로 확인 된 것은 치과위생사는 ‘전문직 단체 활용도’,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학문적 역량 강화욕구’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는 현실적으로 협회 차원의 소속감이나 협회가 치과위생사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하며,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학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와 보수교육, 치과전문지나 치위생전공학회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의 결과로 생각되어 학교차원에서의 안내 및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을 살펴보면, 지원동기, 학과 만족도, 실습기관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먼저 본

인의 관심 및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학)과를 지원한 경우가 다른 이유에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보다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2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0], 작업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1]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치위생(학)과 만족도와 실습기관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5]의 연구에서도 전공 선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고, [23]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42]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아져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전문직 정체성은 임상실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경험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1]의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의 연구에서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는 학과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설명력은 17.9%였다. 즉, 학과 만족도가 높고 임상실습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적으면 전문직 정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과 만족도는 낮아지고 반면,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 형성 시 겪게 되는 갈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직업정체감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6,23,43].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교육 표준안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고 평가해봄으로써 전공 및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둘

째,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고충에 대한 관찰과 소통을 위한 대학과 실습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촉진자 역할의 담당자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리에 필요한 인성교육 및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과 실습기관,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방법 도입과 이를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과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개발된 전문직 정체성 측정도구를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활용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대상 확대를 통한 일반화가 필요하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개인 및 실습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스트레스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으로 무례함은 1.81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3점, 전문직 정체성은 4.12점으로 나타났다.
- 2) 전문직 정체성은 지원동기(<0.01), 학과 만족도(<0.001), 실습기관 만족도(<0.01)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3) 무례함,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무례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696$)는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r=-0.150$)은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학과 만족도($\beta=0.358$ $p<0.001$)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환자와의 갈등($\beta=-0.196$ $p<0.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9%였다.

이에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 시켜야 한다. 또한 담당 교수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면담으로 임상실습 전 개인 특성 및 실습 기관 배정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학과 만족도를 제고한다.

REFERENCES

- [1] B. Y. Won et al. (2019). Current conditions of dental hygiene clinical training in Korea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9(1), 19-31. DOI : 10.13065/jksdh.20190012
- [2] H. S. Shim & H. N. Lee. (2014).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2), 139-145. DOI : 10.13065/jksdh.2014.14.02.139.
- [3] S. S. Choi & Y. H. Lee. (2017).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in selected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5(3), 953-962. DOI : 10.15205/kschs.2017.09.30.953
- [4] J. G. Kim, J. H. Yoo & E. Y. Cheon. (2017).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16-324. DOI : 10.5762/KAIS.2017.18.1.316
- [5] J. H. Song & H. J. Kim. (202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102-110. DOI : 10.22156/CS4SMB.2020.10.09.102
- [6] J. L. Son, E. B. Lee & J. H. Jang. (2016).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through clinical exper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5), 701-708. DOI : 10.13065/jksdh.2016.16.05.701
- [7] L. M. Andersson & C. M. Pearson (1999).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452-471. DOI : 10.5465/amr.1999.2202131
- [8] E. Y. Yeom. (2019).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f nurses' incivility and social anxiety on emotional labor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4), 293-302. DOI : 10.5392/JKCA.2019.19.04.293
- [9] M. K. Jeon & J. W. Oh. (2017).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39-346. DOI : 10.14400/JDC.2017.15.01.339
- [10] E. M. Kwak, H. J. Yun & M. A. Park. (2021).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160-168. DOI : 10.5762/KAIS.2021.22.2.160
- [11] H. M. Yang, Y. J. Lee & K. J. Lee. (2019).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ident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637-648. DOI : 10.35873/ajmahs.2019.9.12.057
- [12] G. Y. Choi & H. K. Yun. (2013). Effect of self-leadership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on clinical practice-induced stres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5), 855-861. DOI : 10.13065/jksdh.2013.13.05.855
- [13] H. M. Kim & Y. S. Cho. (201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17(6), 533-542. DOI : 10.17135/jdhs.2017.17.6.533
- [14] J. E. Park, S. A. Kim & Y. D. Park. (2016). Professionalism identity and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4), 609-615. DOI : 10.13065/jksdh.2016.16.04.609
- [15] S. M. Lee & S. H. Kim. (2011).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2), 189-196.
- [16] J. W. Oh, B. Y. Huh & M. R. Kim. (2019). The effects of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0(4), 59-73. DOI : 10.22143/HSS21.10.4.5
- [17] S. M. Koo & H. J. Kim. (2020). The effect of the degree of incivility experienced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stress coping strategy on the formation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3), 104-114. DOI : 10.22156/CS4SMB.2020.10.03.104
- [18] Y. M. Kwon, E. J. Y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3), 285-292.
- [19] K. Hallin & E. Danielson. (2008).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1), 62-70. DOI : 10.11116/j.1365-2648.2007.04466.x
- [20] J. Y. Gu, S. R. Lim & S. Y. Lee. (2017).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dental offi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17(6), 516-522. DOI : 10.17135/jdhs.2017.17.6.516
- [21]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 E. S. Jung. (2018).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2), 239-251. DOI : 10.13065/jksdh.2018.18.02.239
- [22] H. A. Jang & S. J. Han. (2018). Effects of role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n burnout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5), 683-691. DOI : 10.13065/jksdh.20180059
- [23] J. H. Choi.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79-85. DOI : 10.15207/JKCS.2019.10.1.079
- [24] M. Anthony, J. Yastik, D. A. Macdonald & K. A. Marshall.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0(1), 48-55. DOI : 10.1016/j.profnurs.2012.12.011.
- [25] S. O. Jo & J. Y. Oh. (201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tool to measur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37-548. DOI : 10.5977/jkasne.2016.22.4.537
- [26] D. L. Beck & R.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DOI : 10.3928/0148-4834-19910301-08
- [27]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28] H. M. Kim.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dental hygienists*. Doctoral thesis. Namseoul University, cheonan.
- [29] JM. Butters & RL. Vaught. (1999). The effect of an extram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perceived clinic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3(5), 415-420. DOI : 10.1002/j.0022-0337.1999.63.5.tb03288.x
- [30] Y. H. Lee. (2021). Beyond 'professionalism' to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3(2), 73-74. DOI : 10.17496/kmer.2021.23.2.73
- [31] S. M. Lee. (2009). A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9(2), 99-109.
- [32] H. Y. Han & B. Y. Suh. (2021).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3(2), 80-89. DOI : 10.17496/kmer.2021.23.2.80
- [33] J. S. Kim.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incivility, coping, career identity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07-416. DOI : 10.15207/JKCS.2017.8.12.407
- [34] J. Y. Kang, Y. J. Jeong & K. R. Kong. (2018).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Nursing, 48(1), 85-95.
DOI : 10.4040/jkan.2018.48.1.85

- [35] M. Y. Han, M. K. Jeon, I. J. Kim & Y. S. Kim. (2019). The occurrence background of incivili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14(2), 139-144.
DOI : 10.15715/kjhcom.2019.14.2.139
- [36] Y. G. Noh. (2017).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5), 461-470.
DOI : 10.11111/jkana.2017.23.5.461
- [37] H. J. Lee. (2016).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75-83.
DOI : 10.15207/JKCS.2016.7.4.075
- [38] J. H. Kim, C. S. Kim, & S. S. Kang. (2013). A study on stress factors radiology students experience during outdoor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36(3), 201-208.
- [39] S. Y. Kim. (2016). *The effects of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40]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DOI : 10.5762/KAIS.2014.15.5.2937
- [41] K. A. Chung & J. H. Cho. (2015).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43-155.
DOI : 10.15207/JKCS.2015.6.5.143
- [42] M. R. Kim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8-208.
DOI : 10.5762/KAIS.2018.19.6.197
- [43] K. H. Jeon, S. R. Lim & M. Kim.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nse of coher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5), 323-330.
DOI : 10.17135/jdhs.2016.16.5.323

심 현 주 (Hyun-Ju Shim)

[정회원]



- 2012년 2월 : 순천향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수료)
- 2013년 9월 ~ 현재 :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임상치위생학, 구강보건학
- E-Mail: shj2013@kduniv.ac.kr